

# 구석기~근현대 '완도의 역사·문화'를 만난다

## 국립나주박물관 '청정 바다의 섬 - 완도' 특별전

2017년 2월 19일까지  
5부로 나눠 완도선 유물 등 전시  
장보고와 청해진 이야기도

명사십리해수욕장, 전복, 장보고, 완도를 생각하면 처음 떠오르는 이미지들이다. 하지만 구석기 시대부터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완도에는 다양한 역사·문화 유적이 잔존해 있다.

완도의 삶, 정신, 역사, 문화를 한번에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국립나주박물관이 2017년 2월 19일까지 특별전 '청정 바다의 섬-완도'를 연다.

완도군과 공동 기획한 이번 전시는 선사부터 현대까지 문화유산과 인물, 역사적 사건 등을 정리해 선보인다. '2017 완도국제해조류 박람회'(2017년 4월 15일~5월 7일) 성공 기원하는 의미도 함께 담았다.

전시는 총 5부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완도의 자연과 사람'에 대해 소개한다. 고지도, 문헌, 자연 등을 통해 역사 속에서 완도가 어떻게 인식됐는지, 또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사람들을 살펴본다.

2부 주제는 '완도의 선사인'으로 완도에 살았던 구석기·신석기·청동기시대 사람들을 문화재로 만나보는 자리이다. 완도 첫 거주자로 알려진 달도의 구석기시대 사



고지도와 신지도 목장 지도

람부터 해조류 등 바다자원을 이용했던 여서도의 신석기인들, 섬마을을 경영했던 청동기시대 사람들을 소개한다. 또 달도 유적에서 출토된 구석기, 여서도 패총 유적에서 나온 토기, 골각기(짐승 뼈를 가공한 도구)를 비롯해 곳곳에 남겨진 청동기시대 고인돌 자료, 해양자원을 선보인다.

3부 '고·중세의 완도'에서는 장보고와 청해진, 법화사지, 바닷길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준다. 통일신라 후기인 9세기경



완도선 유물

동북아시아 해상권을 장악했던 장보고의 삶과 청해진, 법화사터 등에서 발굴된 유물이 전시된다. 조약도 인근 어두리 앞 바다에서 1983~84년 발굴조사된 청자장고 등 완도선 유물도 출품된다.

4부 '근세의 완도'에서는 임진왜란, 유배인, 종교에 대해 알려준다. '삼도수군통제영 고금도진과 이순신'을 주제로 총무공 관련 유적과 전적류 등을 소개한다. 또 윤선도·이광사·정약전 등 유배 인물과

함께 완도 관음사 목조보살좌상과 복장유물을 살펴볼 수 있다.

마지막 5부에서는 근현대 기록과 미래를 도서, 사진, 영상, 도구 등을 통해 돌아보는 자리이다. 구한말 반봉건 운동에서부터 현대화된 여촌 모습을 선보인다. 또한 소안도에서 배출된 독립운동가 88명 기록을 통해 완도군 항일투쟁사를 공개한다. 문의 061-330-7829.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데

지난 2006년 9월 '박진현의 문화카페'(문화카페)를 오픈했으니 햇수로 10년이 넘었다. 문화계의 이슈와 트렌드를 다룬 저널리스트의 고정칼럼은 당시 지역에선 처음이었다. 첫 출고를 앞두고 부담감으로 전전긍긍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광주일보가 귀한 지면에 '문화카페'를 게재하기로 한 건 못말처럼 쏟아진 문화담론 때문이었다. 지난 2005년 국립아시아 문화전당(문화전당) 착공을 계기로 지역사회에는 수많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관련 이슈와 포럼, 이벤트 등이 이어졌다. 일각에선 과도한 문화의제에 피

문화장조용합벤트의 '배경'에 의구심을 드러냈지만, 기자는 이런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았다. 문화부 예산이 한정돼 있는 만큼 상식 있는 정부라면 무리하게 동일한 성격의 문화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정말이지 그뎀 그렇게 믿었다. 대신 지난 2014년 1월부터 시행된 정부의 '문화가 있는 날'(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꽃하' 문화의 생활화와 관련된 글을 수차례 문화카페에 실었다. 대통령과 측근들이 '문화가 있는 날'에 영화 한 편을 보며 문화융성을 운운했던 날에도. 최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실제

## '진정 난 몰랐었네'

로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교토정리'를 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 문화전당이 개관하기까지 광주는 크고 작은 이슈들로 조용한 날이 없었다. 지하로 설계된 문화전당 구조는 화려한 랜드마크를 꿈꿨던 지역민들을 허탈감에 빠뜨렸는가 하면 5·18 학생의 흔적이 깃든 옛 전남도청의 별관철거 논란은 지역사회를 갈라놓았다.

1년간의 우려곡절 끝에 별관철거가 가닥을 잡는가 싶더니 이번엔 문화전당 콘텐트가 속을 썩였다. 지역의 정서와 거리가 있는 실험적이고 난해한 내용이 문제였다.

무엇보다 MB정권과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문화전당의 위상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특히 '문화융성'을 내건 박 정부의 국정기조와 달리 창·제작 기능을 갖춘 문화전당의 예산과 인력은 대폭 축소됐다. 반면 2014년부터 추진한 정채불영의 '문화장조용합벤트'에는 수천억 원의 예산이 집중 투입됐다. 당시 일각에선 문화전당과 유사한

가 하나 돌씩 밝혀지면서 문화분야가 비리의 온상으로 떠올랐다. 가장 정치색이 없을 것이라는 세간의 믿음을 깨고 최순실-차인택 문화장조용합벤트 본부장-김 종 전 체부 장관으로 이어지는 비선은 문화탐욕의 놀이터로 전락시켰다.

정부의 문화전당 홀대도 이런 맥락과 무관치 않은 듯하다. 실제로 문체부는 문화전당의 문화장조용합벤트 논란은 지역사회를 갈라놓았다. 1년간의 우려곡절 끝에 별관철거가 가닥을 잡는가 싶더니 이번엔 문화전당 콘텐트가 속을 썩였다. 지역의 정서와 거리가 있는 실험적이고 난해한 내용이 문제였다.

무엇보다 MB정권과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문화전당의 위상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특히 '문화융성'을 내건 박 정부의 국정기조와 달리 창·제작 기능을 갖춘 문화전당의 예산과 인력은 대폭 축소됐다. 반면 2014년부터 추진한 정채불영의 '문화장조용합벤트'에는 수천억 원의 예산이 집중 투입됐다. 당시 일각에선 문화전당과 유사한

문화계의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문화전당이 오는 25일 개관 1주년을 맞는다는 다행스럽게도(?) 일명 '최순실 예산'으로 불리는 내년도 문체부 예산이 거의 삭감됐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문화전당에 관심과 예산지원을 통해 '문화발전소'로서의 위상을 회복시켜야 한다. 그것이 문화전당, 아니 광주에 속죄하는 길이다.

<편집부국장·문화선임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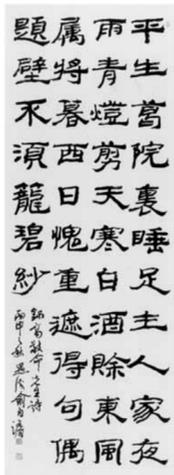
## 학정연우서회전...고경명 선생을 기리며

24~30일 금호갤러리

학정연우서회전 학정 이돈홍 원장의 제자들로 구성된 (사)학정연우서회(회장 유백준)가 24~30일 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에서 '제40회 학정연우서회전'을 연다.

올해는 40주년을 맞아 지역 대표 문인 이자 의병장이었던 고경명을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충렬공 제봉 고경명 선생을 기리며'를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전시에는 회원 126명이 참여해 서예, 문인화, 전각 등 작품 135점을 선보인다. 제봉 고경명 문집에서 시문을 선정해 작품화하면서 지금 이 시기에 절실한 정신문화가 무엇인지 고민한 흔적들이다. 각 작품마다 한글 해설을 배치해 이해를 돕는다.

이 원장은 '고종(高宗)이 내린 제문(祭文)'을 훌륭해 제자들을 격려한다. '一門忠孝 萬古綱常'(일문충효 만고강상) 등 고경명 집안은 1865년 대원군이 서원을 철폐할 때 장성 필암서원과 함께 전남에서 폐쇄



유백준 작 '갈원에서'

되지 않았다.

또 유 회장은 '갈원(葛院)에서'를, 김종태 이사회장은 '설정만조'(雪晴晩眺·눈 개인 저녁 경치)를 출품해 고경명의 문학적 소양을 소개한다. 한편 1975년 발족한 학정연우서회는 선현들의 정신을 본받고 기리기 위해 매년 호남 문인들을 주제로 회

원전을 열고 있다. 문의 062-222-4155.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가을밤의 첼로 선율...김재준 독주회

26일 금호아트홀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 모금도

첼리스트 김재준(사진) 독주회가 오는 26일 오후 7시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이번 연주회에서 김씨는 베토벤의 '첼로 소나타 3번 A장조 작품 69', 쇼팽의 '첼로 소나타 G단조 작품 65', 현대 음악 작곡가 아르보 파르트의 '겨울 속의 겨울'을 들려준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예술사 과정을 수석졸업한 김씨는 라이프치히 국립음대 석사 과정, 실내악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했다. 2011년 금호아트홀 귀국 독주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현재 서울신포니에타 솔리스트, 첼로 앙상블 '연', '더 파르티' 단원으로 연주하고 있다.

피아노 반주는 라이프치히 국립음대 최고 연주자 과정을 마친 이유정씨가 맡았다. 이번 음악회는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를



위한 모금 콘서트로 준비했으며 오는 12월 3일에는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 홀에서도 연주회가 열린다.

문의 02-511-192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광주여성재단, 내일 제5회 광주젠더포럼 정기총회

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장혜숙)은 24일 오후 3시30분 홀리데이인광주호텔 컨벤션홀에서 제5회 광주젠더포럼 정기총회 및 포럼을 개최한다.

'광주젠더포럼, 시민과 함께 가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광주여성재단 강연자 정책연구실장의 주제발표 '양성평등정책의 방향과 과제', 최선희 광주젠더포럼 집행위원장, 황인숙 광

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등이 참여하는 토론, 정기 총회 순서로 진행된다. 2012년 6월에 발족한 광주젠더포럼은 지역여성정책 의제발굴과 여성네트워크를 활성화를 위해 정치, 경제·노동, 교육·보육 등 500여명이 10개 분과로 나누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문의 062-670-053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CGV광주용봉점 2층 상가매매**

체육관련업종(에어로빅, 체육관, 당구장) 병원, 학원, 미용실, 골프 아카데미등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 2칸)
- 매 7억5천만원 (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CGV광주점 2층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분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화순 도곡 무인텔 매매**

최근 올 리모델링 객실28개 최상의 입지 및 현 성업중

- 매23억 (근저당 14억5천만원), 실투자 8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상기 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조정이 가능합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www.naver.com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참숯구이 돼지갈비 전문점**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솔향기 맑은터는 충청남도 진평향 그리고 혁신도시에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빠는날 화, 목, 토, 일 불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동,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